

리니연이나던창성은살벌을주장흔별이라성왕방을대고하느니이제나락의진머리를
성왕방으로두엇스니그패함을보리로다하교즉시도와군사를물너삼십리밖게
곳쳐진치고삼군을쉬라하며원쉬밤마다던상을우러러보더니데삼일진을다시움겨
흑풍산서북벽여보밧게일조로치고군중에하령왈오날오시에접전하야미시에파하
리니동쇼는오천기를거느려흑풍산동남벽보밧게미복하교마달은오천기를거느려
흑풍산남수벽보밧게미복하야나락의가느길을막자르라량장이응명되출하야군사
를거느리고가니라만왕나락이또호흑풍산남편에결전하야싸함을도도니양원쉬홍
포금갑으로진상에나안져군사로웨여왈대명원쉬만왕을보고슈작할말이잇스니잠
간진전에나서라나락이즉시진전에나와시레하거늘원쉬보라보니신장이구척이오
요디십위오눈이김고코높호며붉은슈염과등군얼골에괴상이녕득하야우슈에장검
을집고좌슈에슈괴를흔들며식량의성음으로크게웨여왈명나라는형데지국이라이
제개주지레로되하니엇지불행치아나리오원쉬척왈네남방을직히여만왕의부귀족
하고중국예우함이최치아니거늘무단이변방을요란케하야스스로부월에나아가
니내황명을밧조와빅만대군을거느려네머리를취코져왓스니만일일즉항복흔죽대
죄를사하교황상씨주달하야만왕부귀를의구히누리려니와불연즉남월왕의머리를
북궐하에달아스이팔만을호령하리라나락이대쇼왈내드름애련하는공변된물건이
라덕을닥근죽왕이되고덕을일흔죽망하느니내오십년정병을길너충원을도모코져

南越王

北闕

하노니던디은쉬과인에게잇서명을쇼멸하교륙함을통일함이지초일거라시불가설
이니원슈는밧비되군하야던명을거스리고어육됨을면케하라원쉬대노하야좌우를
도라보아알늑능히나가싸호리오선봉장군되던풍이도채를출추며나가니원리되던
풍이일기벽력부를써만부부당지용이잇더니바로나락을취코져함에만진중복소
장이나와마져싸화불과삼합에던풍이도채를들어만장을마하에찍으니만진중복소
리진동하며량기만장이일시에나오거늘명진중소스매또나가니소스마는일도방던
극을쓰니창법이결류하더라츠시스장이서로마져십여합을싸화승부를결우더니나
락이대노하야좌슈에든슈괴를흔들때홀연일진광풍이진중으로니러나흑풍산모
래를불어검은몬지명진을덥쳐오니지척을불분하교군시눈을뜯길이업거늘원쉬정
을처량장을거두고즉시등사괴를진전에쐬고진문을변하야무곡성관의팔괘진을쳐
손방문을닷음애진중이안연하야풍진이침노치못하더라원쉬자로군리를불너군중
루슈를잡지하더니미시를보흔대원쉬다시진문을열고궁노슈를불너각각살뎡해화
승을달아불을혀고셔북풍이닐거든일제이흑풍산을향하야쏘라하니수빅명군노쉬
일시에형령하교화를매여기드리더니과연오말미초에서북풍이대작하야절목발옥
하교양사주석하니흑풍산모래돌쳐만진으로쏟니며명진중수빅명궁노쉬화전을일
시에쏟애공중에느는살이풍세를싸라별코치출너흑풍산에써러지니지코흔흠애불
이번저경각간에일좌흑풍산이화산이되야바람에느는티끌이화약코치니러나만진

諸葛武侯

天火心星

昆明池

箕星
北斗杓星

을 덥혀 오니 나락이 풍거를 급히 돌녀 동남풍을 짓고져 하나 인력으로 부는 바람이 엇지
 하눌 조화를 당하리 오나 락이 홀일업서 풍거를 바수고 필마 단기로 동남간을 바라보고
 다라나더니 일지군매 길을 막으며 일원대장이 창을 두루고 크게 소리왈 대명좌익장군
 동최여괴잇스니 만왕은 닷지 말라 하거늘 나락이 싸홀췌이 업서 물을 싸쳐다 서서 남간
 으로 닷더니 또 일지군매 길을 막고 일원대장이 월도를 출추어 대척왈 대명우익장군 마
 달이여괴잇스니 쥐고 혼오랑캐는 닷지 말라 나락이 대노하야 돌쳐서로 수십합을 싸호
 더니 등뒤에 함성이 대작하며 양원슈대군을 모라식살하거늘 나락이 황망이 물을 싸쳐
 정남방을 바라보고 다라나니 원슈쫓지 안코 대군을 움켜 흑풍산 남편으로 오십리를 나
 와 진치고 경야 홀췌소스매 원슈씩고 왈 원슈의 용병호심은 제갈무후도 당치 못할가 하
 노니 이번 흑풍산 싸움에 쇼장이 의아하느배 두가지라 미시에서 북풍을 엇지알으시며
 흑풍산 흠에 불이 다리여 화약과 다름이 업슴은 그 무슴곡절이니 잇고 원슈쇼왈 장슈되
 야런문디 리를 통달치 못하죽 엇지 장슈라 하리 오내 흑풍산을 봄에 평원광야에 리룡이
 업고 전후 좌우에 초목이 희소하니 이는 심상호산이 아니라 남방화괴이 곳에 모혀그분
 야로 본즉련화심성이 빗쳐이고 방위로 본즉 삼리화덕이 정중하야 상하로 화괴를 밧으
 니 돌이 두고 흠이 지되야 곤명지의 겁해닐지라 만일 불에 다린즉 엇지 번지지 아니리오
 내 또 작야에런 상을 잠간 봄에 괴성이 들에 갓갑고 북두표성에 검은 구름이 세엿스니 괴
 성은 바람을 주창하코 그 방위 정남방오위에 잇스니 이는 오후에 바람 불징죄 오후운이

太歲喪門

五鹿洞
鐵木洞
太乙洞
花菓洞
大鹿洞

盤蛇谷

표성을 덥혔스니 이는 서북풍이 불장본이라 연이나련문디 리를 가히 전혀 밧지 못할지
 니 반드시 인사를 합하야 볼지라 나락의 진천것을 보니 래세 상문을 범하야 흑괴진상에
 그득하니 그 패홀 줄아 랫노라 좌우제장이 모다 탄복하니 동초마 달이 문왈 금야나 락이
 남으로 다라날 줄알으시고 혼장슈를 더보내사 정남방에 미복홀죽반드시 성금하리니
 엇지 아니시니 잇가 원슈쇼왈 내 남만을 모음으로 항복고져하노니 금번은 처음 싸움이
 라 나락을 짐짓 노아 그 지조를 다하거늘 이라 장군이 엇지 제갈무후의 철종철금함을 듯
 지 못하노 제장이 또 탄복하더라 원슈형군하야 남방으로 가며 나락의 종적을 탐문하니
 임의오륙동에 드러가다시 만병을 슈습하더니 원리나 락의 동학이 모다 다섯곳이라
 데일동은 털목동이 나락이 잇고 데이는 래을 동이 오데삼은 화과동이 오데스는 대륙
 동이 오데오는 오륙동이 나락창름과 군병이 게잇고 도로 산천이 흉험하더라 원슈도
 병드려오륙동 길을 무른대도 병이 고왈 오륙동이 여괴서 일벽여리니 가는 길이 험하야
 반사곡을 지나가느이다 원슈이에 우익장군 마달로이 천괴를 거느려 선형하야 길을 열
 나하니 일처에 나름에 산세 출급하코 석각이 참암하야 군매형홀길이 업거늘 마달이나
 무를 씌어 드리를 늦코 돌로 길을 메이며가더니 언잔에 일락서 산하코 어두운 빛이나
 거늘 마달이 동구편편호곳에 군스를 멈추고 대군을 기드린대 원슈느러 보고왈 이곳
 이 험하코 협축하야 대군을 머므지 못하리니 황혼월식을 췌여 수리를 더형하케 하라 언
 미필에 일진광풍이니 러나며 풍편에 함성이 요란하거늘 원슈대경하야 군스를 멈추고

산에올나멀니보라보되괴책도업스니도병드려문왈이곳디명이무엇이뇨되왈반샤
곡이니이다원쉬이에대군을거느려십여리평디에느려진치고경야홀시시야장반에
또광풍이대작하며풍편함성이또요란하거늘원쉬괴이히녀여동마랑장을불너멀니
책후야보라하니또괴책이업는지라원쉬군중을신칙하야자지말라하고장중에안
져서안을의지하야병서를보더니홀연군중이숫두어리며동성이니러나니원쉬대경
하야즉시군중을순회하며군정을순회봄에제군이머리를부등기고동성이물설듯하
니원쉬침음량구에도병을불너문왈이곳에혹넋날전장이잇느냐되왈쇼디등이쳐
에왕리희소하야다만반샤곡을알싸름이오전장잇슴을듯지못하니이다원쉬다시침
음왈적막공산에함성이니러나고성호군식일제이병드니이반드시곡절이잇슴이
라혹산중에귀디잇서작란함인가하노라언미필에또함성이대작하니되런풍이대노
하야벽력부들들고내다라왈쇼장이맛당히함성을차자가곡절을탐지하오리이다
말을듯고분연이도책을메고소리를싸라호곳에니르니골이깁고좌우에슈목이참런
흔되귀디의곡성이추추하거늘런풍이발을멈추고소리나는곳을순회해나무척이와
바회틈에덩쳐업시괴풍과음괴사름을엄습하니런풍이더욱대노하야도책을들어나
무를버히며바회를짜어그피를자산을몬들고도라오니라이윽고광풍이더욱대작하
며군중의동성이빅빅대하니원쉬크게근심하야편복으로원문에나월하에비회하며
계교를싱각하더니홀연또광풍과함성이지나간싹헤난디업는령령하거문고소리멀

니들니거늘원쉬이상이너여그금성을차자빅여보를형하니수간고괴산하에잇고묘
전에니름애쳐여진담에등리얼켜잇고고목에야학이깃드려그년구흔신피임을알지
라문을열고보니일위쇼상을답상에되섯스되삼분런하의무궁흔근심이미우에마득
하고만고운쇼의청고흔괴상이진면에나타나불문가지위와룡쇼상이라원쉬대회하
야압헤나아가공경지박하고만히빌어왈

後學楊昌曲 皇命 此處 昔日先生 五月渡瀟
후학양창곡이황명을받조와초쳐에나르오니석일선성의오월도로하시든싸히라
昌曲 先生 才德 先生 職責 受命以來 夙夜憂歎
창곡이선성의지덕이업고다만선성의직책이잇슴애슈명이리로속야우탄하야그

도보홀바를아지못하오니만일선성이돕지아니신즉중원일국이피발좌임하느분
그림이잇슬가하느이다복념선성은한실을위하샤국궁진책하야공입을일우지못
하더니반드시정령이민멸치아니실지라우리대명이한당을니어당당정통이수빅
年 傳 精靈 泯滅 伏念先生 漢室 爲 翰躬盡瘁 功業 堂堂正統 數百
年을전하야오다가금일위티홀이한터력과곳스오니만일선성의정령이게신즉한

실을위하셔든충성으로대명을도으샤중국을돕히시고이력을물니치논의리평일
과다름이업슬가하느이다이제대군이멀니와무단이병들고적막공산에함성이니
러나니창곡이혼암하야그빌의를아지못하느니복원선성은신명을빛내샤악풍과
昌曲 昏暗 大軍 無端 病 寂寞空山 喊聲 伏願先生 神兵 惡風

病大功
병을물니쳐대공을일우게하소서

원쉬빌기를못고탁상에점치는거북이노였거늘다시일패를엇으니대길흔지라원쉬
대희하야지비하고문이나옴에공중에한소리벽력이늘니며광풍과함성을모라거체
업더라원쉬군중에도와밤을무르니오경삼덥을보하거늘잠간곤되하야서안을의
지하야안젖더니일진청풍이장을거두치며장밧게신소느소리나거늘원쉬늘나보
나이지못케라그누군고하회를보라

데십이회

동학을일코나타이군사를청하고
도스를천거하고운룡이산에도라가다

失洞壑那吒請軍
薦道士雲龍還山

각설양원쉬장밧게신소느소리에늘나보니일위선성이윤건학창으로빅우선을들
고청슈흔미목과유이흔풍치못지아녀와룡선성이라원쉬황망이몸을니러좌명레필
에원쉬공경문왈쇼즈는후성이라선성의고명을경양흔지오래오니유명이다르고
금이부동흔애이곳치외음을브라지못하엿습더니금일정령이엇지만릭지방에늘으
시느니잇가선성이쇼왈이곳은로부의남정하야만병을파하든곳이라남방사람이로
부를싱각하야일잔모옥에향화를긋치아니함애유유흔령이왕리무명하더니맛춤
원슈의대군이초쳐에곤함을듯고위로코져왔노라원쉬살어문왈무주공산에함성이

대작하고일이삼군이무단득병하니이무숨곡절이니잇가공명이쇼왈로워일즉등갑
군수만명을초쳐에죽였더니미양현음우습흔즉추추원흔이형인과직을요란케하느
니이제모르고대군을침범함이라로워임의제어하얏스니원슈는두어마리우양으로
주린원흔을먹이고감이도출가하노라원쉬또고왈만왕나타이오록동에웅거하야파
홀방락이업스오니선성은몹히마르치쇼서공명이쇼왈원슈의장략으로쇼적을엇지
근심하리오마는문저미후동을치라설파에표연이니러나가거늘원쉬늘나쳐치니장
중일몽이라원문고각이재벽을보하고동던서식이몹아오니원쉬즉시장을것고군정
을무른대병세덜니고광풍이침식하야군중이안녕하더라원쉬대희하야동마랑장을
보내야반사곡동구에단을모으고전망흔등갑군을제할식그제문에알

某年某月某日 大明都元帥 右翼將軍馬達 戰亡 藤甲軍 魂
모년모월모일에대명도원슈는우익장군마달을보내야전망흔등갑군의흔을불너
告曰 時運 不幸 天下 擾亂 兵革 四力 生靈 塗炭
고왈숯하다시운이불행하고던하요란하야병혁이스방에니러나고싱령이도란에

蚩尤 絕域 蠻貊 之人 行伍 參與 一天之下 赤子 蒼生
짜짐애너의비록만리절역에만릭지인이나또흔일던지하에적조창싱으로장기를
브리고창대를잡으며쳐즈를떠나향오에참여하니급흔불에골육이제되고갑흔되

精靈 屯聚 無主 孤魂 塞食 麥飯 祭 然 死
에정령이둔취하야무주고흔을불을재업고한식릭반을누라서제하리오연이나스
生有命 成敗在天 無端 惡風 怪疾 困
싱이유명하고성패지련하거늘무단이악풍을지으며괴질을니러혀형인을곤케하

나내비록잔멸하나 황명을 받드려 백만대군이 여웅여비하고 여휴여비하니 혼번호
令則山川 遺魂殘魂 依託
 령호즉산천을 뒤집어 유혼잔벽이의탁홀곳이 업게 할배로대그살아왕화를 넘지 못
冤鬼 依託 側然 軍律 死生 數十頭牛羊 特別
 하고 죽어 원귀되야 주리고의탁업슴을 죽연하야 두어 섬술과 수십두우양으로 특별
魂 作亂
 이 주린 혼을 먹이고 가노니 만일 다시 작란호즉 군률이 잇서 스싱의 다름이 업스리라
 츠시동마량장이 제문을 남고 술과 우양을 단하에 못음에 참담한 구름은 동중에 훗하지
 고음습흔바람은 곡구에 내려나며 수풀아래와 언덕우에 머릿고니 마데인무수흔귀
 줄이고 두빅비하고 은은이 도라가더라 평명에 원쉬형군하야 전진홀시 청풍이 괴발을
 불어 산중초목이 병세를 돕는 듯하더라 원쉬척후하노니 만병을 잡아나락의 종적을 무른
 대퇴알대왕이 지금 오록동에 계시니 이다 원쉬우문알미 후동은 여괴서 몇리 노되 알남
 중에 미 후동은 본디 업는 이다 익주도병이 녀해섯다가 척알내일 즉 봄에 만인이 복송아
 를 팔나와 말하되 미 후동복송아라하니 엇지 미 후동이 업다하리오 원쉬대노하야 만병
 일인을 군전에 버히고 다시 일인드려 문알내임의 알고 못노니 바로 고치아니하면 또 버
 히리라 만병이 대답하야 바야흐로 고알만왕이 군사를 두패에 난화한 패는 만왕이거
 러미 후동에 미복하고 한 패는 가만왕을 몬드려 거느리고 오록동에 잇서 원쉬의대군이
 오록동이 만왕을 치거든 미 후동진만왕이 미복한 군사로 뒤를 엄습하야 뇌외협공하랴
 하느이다 원쉬바야흐로와룡의 무르침이 헛되지아님을 알고 소스마를 불너 무만이닐

니알여 츠여 츠하라스스매령령하고 즉시대군을 네세에 난화각각지휘하나라차설미
 후동은 만왕의 별업이라 오록동동편에 마조잇더라 나락이 만장털목탑을 장속하야 일
 기가 만왕을 몬드려 오록동에 두고 나락은 스스로 정병을 거느려 미 후동에 미복하야 원
 슈의대군이 오록동침을 기다리더니 아이오고 각이 환련하고 함성이 동디하야 양원쉬
 대군을 모라바로 오록동을 치거늘 털목탑이나락의 괴호와 복식을 못초아 동문을 열고
 접전홀시 나락이 양원슈와 털목탑이 접전홀을 보고 미복한 군사를 거느려 미 후동으로
 돌출하야 뒤호로 양원슈를 엄습고져하더니 동문에 남애미 후동서편으로 일기 양원슈
 일지군을 거느려 길을 막고식살하나 나락이 대경하야 정히 당황하더니 미 후동동편으
 로 또 일기 양원슈 일지군을 거느려 길을 막고식살하야 좌우협공하야 나락을 위싸니
 털목탑이나락의 위티힘을 보고 오록동을 버리고와 나락을 구할식량기 만왕과 삼기 양
 원쉬 각각 대군을 호령하야 반향을 싸호다가 나락이 계궁력진하고 랑기 양원쉬전후좌
 우로 쳐드러오니 삼신이 황홀하고 모음이 현란하야 엇지 명병의 승승함을 더덕하리오
 필마단괴로 위싼것을 헤치고 오록동으로 드려가고져하야 동전에 이름애 동문이 닫
 치고 문우에 또 일기 양원쉬안져 호령알나락아네 만왕이 돌임을 자랑하고 양원쉬넛임
 을 모르느다 내임의 오록동을 취하얏스니 밤비항복하랴언미 필에 양원쉬대우전을 싸
 쳐호번썰애나락두상의 흥덩지마하에 썰러지나 나락이 혼불부테하야 물을 싸쳐남을
 브라보고 다라나더니 일원로장이 또 길을 막고 대척알뢰천풍이여괴서기드린지오래

니네후풍산놈은너이금일로부의도채뒀헤못치리라나락이대답지안코서로십여합
을싸호다가뒤를도라보니털목랍이또흔패하야다오며그뒤에퇴설이창던하코함
성포향이던디를뒤집으며양원슈의대군이니르거늘나락이대경하야다시물을싸혀
서남으로다라나니원리미후동서편에나오든원슈는마달이오미후동동편에나오든
양원슈는동초오오록동치든양원슈는소유경이오나종오록동문우에안젖든양원슈
논이에출양원슈라치시나락이계교를형하다가도로혀랑패함애단기로추신하야대
록동으로드러가니양원슈쫓지아니하코대군을거두어오록동에들패우양창름과전
마궁시를불쇼이엇엇더라익일양원슈소스마를다리고오록동유산에올나멀니보라
보니서남잔으로십여리밧게일좌고산이잇스되산세흉험하야중중덥덥흔봉우리는
겹괴를씨엇스며울을창창흔슈목은연괴에점젖는디그압흔보니들이넌고풀이가늘
어불문가지위안왕동학이라양원슈소스마를보아왈만중산천이이긋치흉험하니어
느날평당하코가무로장안에도라가리오소스매왈원슈의장략으로맛당히불일도평
하실가하느이다원슈탄왈북방은순음지방이라일양이싱하느고로그풍속이강한흔
중교사함이만흐니그런고로조고로장슈된재북방에성공함은쉽고남방에성공함은
어려오니내이제빅면서성으로중임을밧드러충효를보답함이여괴잇스니그괴흔번
두름과북흔번침을엇지경솔이하리오이제대록동을봄애진소위련힘지디라힘으로
세치지못할지니금야에맛당히여쳐여쳐하코고장중에도라와군중에싱금흔만병

을다결박하야장전에설니고분부왈너의다나라빅성이라그릇나락에게속아스죄에
새젖스나만일성심으로항복흔즉대죄를샤하코회하에부리리라수십명만줄이일시
고두하며살기를밧거늘원슈대희하야밧것을그르고주육을먹이며달니여왈너의임
의항복하얏스니다나의군식라내이역에드러와도로산천이성소하니네전도하야지
로하라만줄이응락하거늘원슈다시군중에하령왈나락이임의동학을일코멀니다라
나스니근심흔배아니라대군을동중에평안이쉬여삼명일형군케하라하코원슈제장
으로더브러술먹고바독두어군중을조속지아니하니모든장졸이괴를뉘이고활을지
우며물을안장벗겨풀에눓코군식항오를떠나혹창을베고나잠자며혹산에올나노래
하야군중이히이하야방비함이업거늘만줄이은근이도망흔썩를두더니명진장졸이
또무단이취함을인연하야만병을육하코조동하며혹발검하야치라하코릉멸구박하
니만병이상의왈원슈비록우리를관디하나제장군졸이이긋치구박하니우리엇지이
때를드도망치아니리오하코혹산을드다라니며혹대로도망하야반일이못되야절
반이나업거늘원슈다시북을쳐군스를모호고괴치창검을정제이하코더욱방비함을
돈둔히하나라치시나락이오록동을일코대록동에드러가모든만장과상의왈명원슈
의장략은마복과제갈무후에양두치아니리니오록동을엇지씨차즈리오하며의론이
분분하더니홀연일기만병이명진으로도망하야와명진동정을일일이고하니모든만
장이다도와말하되이때를드임습하자흔대나락이반신반의하야계교를당치못하디

니또수기만병이도망하야말이어출일구하고뒤를니어혹오륙명식십여명식략여부
 절이와호결못치말하니나락이또호십분의아하야다시문왕양원쉬무엇하더뇨되왈
 술먹고바둑두어군중일을못지아니하니군중이산란하더이다나락이우문왕군수는
 무엇하더뇨되왈로자는낮잠자고쇼자는쥬정하더이다나락이우문왕군수는무엇하
 더뇨되왈병든자는신음하고성호자는작란하야칼을생혀서로치며일분조속함이업
 더이다나락이우문왕동문은어느장쉬직희엿더뇨되왈남문은마달이직희고북문은
 동희직희나미일대취하야동문출입을못지아니함애소디등이성군작당하야랑자이
 도망하나못는재업더이다나락이침음랑구에쇼왕양원슈는비범한장쉬라군중을이
 못치히키게하지아닐지니엇지괴괴아니리오렐목탑왈쇼장이맛당히오륙동에가명
 진동정을만히보고오리이다나락이대희하락흔대렐목탑이필마단괴로월석을씨
 여오륙동을만히보고오리이다나락이대희하락흔대렐목탑이필마단괴로월석을씨
 오륙동에귀에은신하얏다가만장의왕리함을탐보하하니라렐목탑이오륙동에니
 르러만히산상에올나동중을굽어보니괴치창검이향오를차려착란함이업고등축
 이휘황하며경덤소리분명하야삼군이자지아니하거늘심중에대경하야다시만히
 언덕에느러서남북문을엿보니문마다제장이인과군수호패식직희여창검을별것듯
 하고섯스니렐목탑이대경하야즉시본진에도와명진의방비함이렐등호함을고호
 대나락이대노하야즉시그만병을잡아드려힐문하니만병이발명왕명진의조속함이

잇슨즉쇼디등이엇지무단이도망하야오리잇가하거늘만장이발되왈쇼장이다시가
 보고오리이다하고또단괴로오륙동을향하오니라이때명진척후호는제장이원슈
 씨보왈지금만장렐목탑이단괴로와동중동정을규시하고가니이다원슈웃고즉시소
 스마되렐동동마랑장을장중으로불너만히약속왕렐장군소스마는각각오천괴를
 거느러만히대륙동남문밖게미복하얏다가본진에합성이니러나며만병이대륙동
 을위로나락을구하러나올것이니이때를두함미돌입하야대륙동을싸아스라또동초
 마달을약속하야왕장군은각각오천괴를거느러대륙동으로오륙동오는거리에가만
 히미복하얏다가나락이반드시오륙동으로향하야올것이니내다라에위싸되곳하여
 잡으랴말고다만괴세를내야돈돈이에위싸고대군을기드리라제장을지휘하야보내
 고다시군중에하령하야괴를위이고갑옷을버셔다만로병수십명으로동문을직희게
 하니라아발되만히오륙동에와명진을엿봄애과연방비함이업서등축이희소하고
 군졸이잠든듯하거늘다시남북문을보니랑기로졸이문전에안져또호조를더러아발
 되대희하야밧비도라와나락을보고과연명진에방비함이업슴을말하니나락이심중
 에크게의심하야랑장의말이다각각다름을보고칼을싸이며몸을니러와과인이천히
 가보고결단하리라하고수기만졸과일기만장을다리고오륙동을향하야오륙리를오
 다가홀연심중에대경왕내명원슈의술중에드러도다렐목탑아발도는심복장쉬라엇
 지그말이이못치상좌하리오이논반드시명원슈나를유인함이로다하고즉시몸을돌

니고저하더니 홀연함성이니 며일디 군대길을 막고 일원대장이 대성왕대명우의 장군
마달이여괴잇스니 만왕은 닷지 말라 언미필에 또 함성이 대작하 며일디 군대길을 막고
일원대장이 대성왕대명좌의 장군 동최여괴잇스니 나락은 닷지 말라 양장이 합력하야
나락을 에워싸니 나락이 칼을 안고 싸운 것을 헤치고 저하더니 명원쉬도 대군을 모라 오록
동으로 나와 중중첩첩히 열홍곳치에 위싸며 십만대군이 일제이괴세를 내여 함성포향
이런디를 진동하더라 추시렬목랍아 발되 대록동에 잇서 만왕의 도라움을 기드리더니
홀연 오록동전에 함성이 대작하 며척후하는 만병이 급보왕대왕이 명진에 싸히사 형제
급하니아다 아발도렬목랍이 대경하야 만병수백명을 동중에 두고 대군을 거느려 동문
을 열고 일제히 내다라 오록동을 바라보고 만왕을 구하랴오더니 마달을 맛나 대전섭여
합에렬목랍이 싸홀쏫이 업서 명진을 헤치고 만왕을 찾고 저하야되노 디로 출돌하니 원
쉬짐짓문을 열어 길을 빌남애 나락이 필마단괴로 황망이나오다가렬목랍아 발도를 맛
나 대록동을 바라보고 다라나더니 동전에 나름애 일원로장이 벽력부를 들고 문외에 안
저 쇼왕로 뒤남방에와 도체를 오래 시험치 못하얏더니 오날네 동학을 취하얏스니 네능
히 싸호라하거든 내도체의 티슬을 써스리라 나락이 대노하야 만병을 호령하야 동문을
쇄치고 저하더니 등뒤에 함성이 진동하 며 양원쉬대군을 모라 나르거늘 나락이 군사를
도로혀서로 싸화수합이 됨애 소스마와 퇴런풍이 동문을 열고 뇌외 협공하니 나락이 디
덕지 못하야 다시 동남간으로 다라나 나락이 야에원쉬도 대록동을 잇음애 동중에 드러

가크게호케홀쏫이제장이원쉬쇄고왈고지명장이일월삼첩을어렵다하엿거늘이제원
쉬는수일지간에만왕의두동학을탈취하되군사를수고치아니하고장슈를일흠이업
스니이논고지명장에업논일인가하느이다원쉬쇼왕공등이쉬움을보고어려움을칭
각지못하노다보건대나락이양쳐동학을용이히브리고죽기로써싸호지아니하니
반드시밋은배잇슴이라맛당히조심할지니엇지쉽다말하리오하더라나락이대록동
을다시일코데삼동으로드러가니이날은화과동이라스면에절벽이돌넋고동중에슈
목이무성하야동문을닷천즉비록십만대군이림하나쳐치기어려우나나락이제장을
타하야상의왕명원쉬의웅지대략은당치못할배라내이제흔괴괴잇스니동문을돈돈
히닷고명병의운량하노길을싼은즉수십일이못되야대록동을도로차줄가하노라제
장이청찬하고즉시동문을닷고나지아니하더라추시양원쉬나락이화과동에들고나
지아님을보고대경왈이괴괴장난쳐하니화과동디형을가본후경륜하리라하괴
일원쉬대군을거느려화과동전에니르러도전하니나락이과연나지아니하고남북문
을돈돈히닷앗거늘원쉬거짓군사를호령하야목석을썩코남문언덕에오르고저하니
나락이시석을굴며방비하거늘원쉬복을치며화과동스면으로돈이며치는데다가
디형을지세보고일모후도라와련일동마량장으로수천괴를거느려화과동을치는데
흔대나락이더욱돈돈히적히고나지아니하더라데오일원쉬소스마를장중으로불너
그만히닐너왕장군은오십필타타와오백명으로약잔병을주노니여쳐쳐하랴또동마

량장을 불너 삼천괴식 주어 왈여 초하라 삼장이 명령하고 가니라 이 때 나탁이 양원
슈의 홀일업시 도라 감을 보고 대희 왈 불출 십일에 백만 명병이 대륙 동중아 귀됨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만병수 십인으로 명진 동정을 탐지하더라 그 운량하는 괴척이 잇거든 보하
라 하니라 일일은 야심 후 만병이 급히 보하되 명진은 량하는 수리승야 하야 락역히 온다
하거늘 나탁이 산상에 올라 보니 십여 리 밖 계덤덤 불이 삼삼 오오 이 오는 지라 급
히 만장이 인을 불너 분부 왈 량인이 각각 일천 괴식 거느리고 명병의 운량하는 수리를 겁
탈하야 오되 만일 군식 만코의 심된 괴척이 잇거든 망령되이 내다지 말고 그 저도라 오라
량장이 응명하고 각각 길을 난화나 아갈 식월식이 희미 하되 명병수 백명이 십여 승수리
를 모라 각각 함미하고 불을 초초 쓰며 오니 일장이 뒤에 켜라 오며 밤비음을 지촉하거늘
만장이 헤오대 승야 함미하니 우리 겁탈함을 저하함이 오손에 괴겁 업스니 더의를 디떡
함이 어렵지 아니도 다 일시 돌출하야 길을 막으니 명병이 대경하야 수리를 버리고 다라
나거늘 그 장쉬 칼을 빼쳐 닳는 자를 호령하며 만장을 마저 수 십합을 싸홀시 만병이 임의
수리를 모라 화과동에 나르니 나탁이 대희하야 동문을 열고 수리를 부리워 봄에 무비정
실 홀곡식이라 서로 치하하더니 수기 만졸이 또 보하되 명병의 운량하는 수리수 십여 승
이 또 나르다 하니 나탁이 대희하야 다시 만장이 인으로 일천 괴식을 거느려 가탈 취하야 오
라 하니 만장이 응명하고 급히 쫓차 나르러 봄에 삼스 십명으로 약 잔병이 수 십 필 락타와 수
십 승수리를 물고 오며 서로 만히 원망 왈 압서 오던 수리논 어디로 갔스며 어두운 길에

불도 업스니 대륙 동은 어디 멘고 하거늘 만장이 일시에 내다라 길을 막은대 그 군식대 경
하야 수리를 버리고 다라 나니 만장이 일천 명 만졸로 수 십 승수리를 풍우갓치 모라 오더
니 수리를 못하야 공중에서 위소리나며 량기 만장이 마하에 떠러지니 좌편 마달과 우
편 동최대 군을 함미하야 만병을 에워싸고 왈 항자는 살 것이 오다라 나는 자는 버히리라
흔대 만병이 홀일업서 일제이 쏠어 항복한대 동마량장이 못지 아니하고 만병을 일일이
결박하야 그의 복을 벗겨 명병을 넘히고 수리를 구이모라 화과동에 나르니 초시나탁
이 량장을 보내고 도라 오음을 고되하고 안젼더니 만병이 수 십 승수리를 모라 오음을 보고 희
불조승하야 동문을 밤비 열고 드리니 수리 계오문에 들매 뒤에서 한 소리 크게 웨여 왈 나
탁아 대명원 슈일거 화를 보내시니 네 머리를 밧쳐 사례하라 언미 필에 수 십 승수리에 불
이 날어 썩름이 흐르는 살갗하야 임의 동문에 다 리여 연염이 창련하니 나탁이 대경하야
창졸에 방비 함이 업고 동마량장이 임의 동중에 드러 동충서 돌하니 경각간에 불이 퍼져
동중 슈목에 당길애 화과 일동이 화염 중에 드러터라 나탁이 세 두를 보고 급히 칼을 들고
물게 올라 접전코져 하더니 동문외에 함성이 대작하며 일원로 장이 도채를 두루며 웨여
왈 원슈의 대군이 동전에 립하얏스니 나탁은 썰나와 항복하라 하고 동중에 돌입하야
동마량장과 세 장쉬 합력하야 동을 얼우고 셔를 치며 남을 얼우고 북을 치니 방포 함성은
산천이 뒤집히고 화과 연염은 동중이 자욱하니 나탁이 그 구치 못할 줄 알고 단기로 몸을
빠혀 동문에 남아 양원 슈대 군을 거느려 막거늘 나탁이 형세 급함에 불우에서 크게 소리

하야 왕과 인은 드름에 큰 버러지는 업된 고기를 먹지 아니 한다 하니 원슈는 일로 벌니
샤 명일다 시 즈음을 결단케 하쇼셔 소스매 칩알내 계궁력 진하얏거늘 오히려 항복지아
니 하고 무슴 소리를 하느뇨 나락 왕금일은 계계에 속음이라 명일 정도로 혼변싸움을 청
하느이다 원슈미쇼하고 괴를 쓸어 진머리를 열여 주나 나락이 물을 싸혀 다라나니 원
슈도 화과동을 취하고 동중에 드러가 디형을 보고 왈 처쳐는 대군을 오래 머므지 못하리
로다 하고 군사를 거느려 화과동 북편 수벽 보밭 계비산 림류하야 진을 치니 소스매 문왈
나락이 반드시랑거를 탈취할 줄엇지 알으시니 잇가 원슈쇼왈 나락이 동중에 나지아
는 나의 량식이 진하기를 기드림이라 운량함을 보고 엇지 겁탈치아나리오 소위 장계취
제라 연이나 나락이 임의 세동학을 일시에 일엇스니 소위 곤호도적이라 내념려하느바
논 혼변 진력하야 싸할가 하느뇨 괴계를 도검하고 군사를 호케하야 기드리게 하라 나락
이 또 화과동을 일코데이 동으로 드러가니 이 날은 태을동이 라 동중에 태을동이 2장크
나 산천이 미무하고 디형이 광활하야 수성할 곳이 아니라 나락이 제장을 띠하야 탄왈 우
리 남방이 오록동을 세세상전하야 구괴를 직히더니 과인에 게너르러 일케 되얏스나 엇
지 속슈 무척하고 좌이디스하리 오명일은 맛당히 대병을 도말하야 혼변죽기로 싸화승
패를 판단하리라 언미필에 장하일인이 크게 소리왕명원슈는련신이 하강함이라 인력
으로 다도지 못하리니 대왕은 계교를 쓰사거짓 항복하고 그름을 드느응외 합함이 묘할
가하나이다 나락이 듯고 대쇼왈 내장 위시운이 불행한즉 출하리 혼변죽어 왜 혼귀신이

될지언 덩엇지구 구이으녀즈의 잔세흔 썩을 효측하리 오만일다 시 항복을 말하느자는
참하리라 하고 동중만병을 몰수이도 발하야 익일 태을동전에 진세를 베푸니 양원슈도
니르러 결진도 전흔대 나락이 진전에 나사 왕과 인이 루츠 계술에 랑패하얏스나 오늘날은
명원슈와 친이 접전하야 즈음을 결단코져하느뇨 원슈는 나오라 하거늘 퇴련풍이 칩왈
우리 원슈황명을 밋즈와 삼군스명의례 중하심으로 엇지요 마만 왕과 항형하야 칼날을
다도시리 오로 뵈비록로 병하나 도채를 시험하야 네 무례흔 썩리를 썩으리라 말을 못치
고 벽력부를 춤추어 바로 나락을 취하라 하느니 나락이 대노하야 좌우를 도라 봄에 좌편에
렬목탑과 우편에 아발되일시에 니다라 퇴련풍을 띠덕하느니 명진중도 초마달이 또 나가
오장이 대전수합에 나락이 바라보다가 붉은 슈염을 거스리고 푸른 눈을 부릅뜨며 혼소
리를 벽력 7치르고 물을 노와오니 그괴세 2장녕특하거늘 원슈소스마를 보아 왈 나
락이 더긋치 흥녕하느니 싱금치 못하리라 하고 진을 변하야 괴정 팔문진을 치고 징을 쳐삼
군을 거두나 나락이 대쇼왈 너의 만일 계술이 아닌즉 엇지 과인을 당하리오 내 임의 중국
사람이 과첩함을 아노니 제장은 말하지 말고 양원슈 친히 나와도 접전은 아니하느노라 하
고 서서이 본진으로 도라가니 원슈소스마 퇴련풍도 초마달을 불너 2만히 약속왈 여
여 초하라스장이 령령하고 나와 퇴련풍이다 시벽력부를 들고 나가며 웨여 왈 우쥬 혼오
랑개 우악함을 밋고로 부의 쇠로 함을 업수이녀여 2장 당돌하느니 나락은 다시 나와 혼변
싸호라 하며 물을 노아 드러가나 나락이 다시 대노하야 칼을 춤추며 물머리를 돌려다시

되련풍을마져대전수합에되련풍이일변싸호며일변물너는대나락이쇼왈필위로홍
하야과인을또유인코저하는다언미필에명진중최또물을노아오며육하야왈슈염
붉은오랑캐것흐로장담하나속은다겁하도대드름에남방사람이화괴를만히바다
심통이크다하니내취하야우심적을디신하야안쥬코저하노라나락이대노하야다시
쪼차대전수합에동최또일변싸호며일변물너는대나락이쇼왈과인이명원슈의계
를알앗스니필부는부절업시유인치말지어다언미필에명진중마달이또물을노아오
며육하야왈내드르니남방오랑캐다만어미를알고아비를모른다하니이노오류의흔
구멍이막힘이라내맛당히그궁글통케하리라하고허리의살을짜혀나락의엄심갑을
맞치니나락이대노하야장검을늘리며물을달녀쪼츠니마달이마져대전수합에일변
싸호며일변물너나더니명진중소유경이또방련극을두루며나와크게소리왈나락아
하시니네만일진중에는죽버셔나지못하리라말을못치며소유경이물을돌녀다라나
고그뒤흐로양원슈소거를두고진문을열고완완이나오며쇼왈나락아네비록조공용
뎡이잇고나를디떡고저하나내맛당히지혜로싸홀지니엇지요마만왕과힘을다도리
오나락이원슈지책에서안연이겁하지아님을보고심중에무명업해만장이나니러나
니엇지스성을도라보리오크게호소리를지르고물을노아범코치다라드니양원슈미
쇼하고수리를썰니돌녀진중으로드러간대나락이급히조차진중에드니양원슈는간

디업고진문이닷치며검극이서리긋거늘나락이더욱분함을이기지못하야칼을두루
며동충셔돌하되버셔날길이업스니츠시털목탑아발되나락이명진에곤함을보고대
경하야일제이창검을들고명진을충돌하니스면이털통코고다만흔문이열넋거늘랑
장이돌입하니검극이수플코고시척이비오듯하야드러온문을차즐길이업더라츠시
나락털목탑아발도삼인이진중에갓치여비록진력하야썰코저하나엇지버셔나리오
동문을침해동문이열니며그문을난죽다시흔문이잇고복을침해복이열니며그문을
난죽다시흔문이잇서종일팔팔륙십스문을출입하나진밧게나지못하나나락이분괴
충련하야범코치쳐더니홀연중앙한문이열니며원슈놓히안져호령왈나락아네이제
도향복지아닐소나나락이대노하야그문으로돌입코저흔대양원슈웃고괴를쓰니문
이닷치고검극이서리긋거늘나락이홀일업서다른길을찾더니홀연남편에또한문이
열니며원슈또놓히안져호령왈나락아네이제도향복지아닐쇼나나락이또분하야그
문을돌입코저하더니양원슈웃고괴를쓰니그문이닷치고검극이또서리긋하야이코
치오문을지내어나락의령흥으로도괴운이저상하고분괴팅중하야안련탄왈내비
록죽기를저허함이아니나오록동학을찾지못흔죽하면목으로디하에가조션신령을
뵈오리오하고칼을들어조경코저하더니털목탑아발되황망이붓드러왈대스를경영
하느자는적은붓그림을도라보지아니하느니양원슈는의괴잇는장슈라다시잠간성
로를벌어봄이가할가하느이다하고랑장이나아가올며원슈에게고두이길왈원슈황

명을 밧드러 남방을 덕으로 항복 밧고져 하심은 쇼장의 아논바라 제쇼장이 일시 지분으로 그릇진중에 드러져 조를 다하 지 못하 고 죽은즉 비록 혼이라 도원통함을 품어 믿음으로 항복 지아닐가 하느이다 원슈쇼왕내임의너를 루츠노앗스나 좋시 항복 지아니하니 금일은 용서치 못하리 라 털목탑이다 시고 왕쇼장이 만일이 다 음다 시 패한즉 비록죽어도 혼이 업슬가 하느니 엇지 항복 지아니리오 원슈웃고 죽시셔 문을 열어 주니 나탁이량장을 다리고 본진에 도라와 허희장탄왕내이제 구차이성명을 보전하얏스나 계궁력진하니 제장은 각각 경륜을 내야 과인의 오늘붓그림을 씻게하라 폐하에 일인이 응성타왕쇼장이 맛당히 대왕을 위하야 일인을 천거하야 오대 동련을 불일회복케하리이다나탁이그 사람을 보니 우부 추장 밧렬이니 한시 밧렬의 형 밧렬의 휘라 나탁이대 회문왕 밧추장이 엇더하 사람을 천거코져하느노 밧렬왕오계군치운동에 일위도인이잇스니도호는 운룡도인이라 도술이 비상하야 능히 호풍환우하야 귀신과 밧렬을 임의로 부리니대왕이 만일 지성으로 청하신즉 엇지 명병을 근심하시리잇고 나탁이대 회하야 밧렬을다리고 쳐운동에 나르러 운룡도인을 보고 나탁이올며 고왕오대 동련은 남방 제전지디라이제 중국에 개일케되얏스니 선성은 비록 물의의고 상한 종적이나 또 혼남방 사람이라 바나 건대 저조를 앗기 지말으샤 과인으로 구괴를 다시 찾게하쇼셔 운룡이쇼왕대왕의 영웅으로 일으신 동학을 일기 산인이 엇지 차즈리오나탁이 지비읍왕 선성이 만일 구원치아니하신즉 과인이 출하리 죽어도라 가지말고져하느이다 설파에 조경코져하느니

孟烈、孟獲、五溪郡、孟節、雲彩、雲龍道人

운룡이 홀일업시 허락하 고도 관도복으로 스승을 두고 만왕을 쓰라 태을동에 나르러 왕대왕은 다만 양원슈와 도전하쇼셔 빈되그진세를 보고져하느이다 나탁이즉시 원슈와 한번 싸호기를 청하느니 원슈쇼왕만취반드시 청병을 엇음으로 다하 고대군을 거느려태을동전에 진세를 베푸니 운룡이진상에 올라보라 보고 놀나느니 홀연 전언을 넘하며 칼을 들너스방을 크게 침애 풍위대작하 고뢰성이진동하며 무수한 신장귀병이명진에워싸 반향을치되쳐치 못하느니 운룡이 칼을더지며 탄왕명원슈는범인이아니라 경련위디홀지죄잇스니 대왕은각승치말으쇼셔 더진법우이에던상무곡성관의선련음양진이라 진손방문을 닷앗스니 진위되하 고손위풍이라 풍뢰침노치 못하 고곤방의현괴를 씻고 금고를 들으니 곤위음이라 신병귀졸이범하 기어려오니이논다 당당호정되라요술로이기지 못하리이다 나탁이이 말을듯고 방성대국왕연즉과인의오대 동련을어느날차즈리오라 건대선성은불상이녀이샤 방략을 크게치쇼셔 운룡이 침음량구에디답지아니하대나탁이다시 지비왕 선성이종시 크게치지아니신즉과인이만중벽성을디홀낫이업스니 출하리선성을조차산중에가 종신코져하느이다 운룡이난처하야왕빈되호방략이잇스나 만일루설홀죽일이일우지 못할뿐아니라 빈도에게해됨이잇스리니 대왕은조량하야하쇼셔나탁이즉시 좌우를물니고 방략을무른대 운룡이바야흐로말하야왕빈도의스비탈탈국총왕성벽운동에잇스니도호는벽운도식라 음양조화지술과런디현묘지리를무불동지하느니아닌즉명병을디덕지 못하려니와 물은덕

脫脫國、叢篁城、白雲洞

과놈흔뜻으로평성을산문에나지아니하니대왕이성의를다하지아니신즉청득지못
할가흔니이다언필에스슴을드고표연이치운동으로도라가니라나락이즉시폐벽을
又초아릭운동을차자가니우읍다나락이구원을청하야덕국을돕고덕국을도아오대
동던을차즈니모르느자는필득의공교힘으로우으려니와던하만식번복무덩하야득
실화복이대범이又흐니엇지인력으로하리오하회를보라

데십삼회

만왕을구원하랴홍남이산에느리고

救蠻王紅娘下山

진법을싸화원쉬군스를물니다

鬪陣法元帥退軍

각설강남홍이만스여성으로이역에표박하야거처를모르더니산중에의탁함을신제
평안함이익회를니젧스나고국을싱각하고심식비창하더니일일은도식홍남을불너
왈로위낭의얼골을봄에타일부귀홀괴상이잇스니로위비록아는배업스나그드른술
업으로써낭에게전코저하노라홍남이스양왈데지듯스옴애너즈유행이무비무의라
다만술빛고밥짓기나의원홀씩름이니놈흔술업을비화무엇하리잇고도식왕낭이세
상을하직하고산중에종신코저홀죽비힘이쓸디업스려니와만일고국의여연이잇서
도라감을말할진대두어가지술법을비화도라갈게대를삼게하랴홍남이지비하고초
일부터스데지의를미저도동의옷을넘고그침을청하대도식대열하야몬저의약복

서와던문디리를차례로그르치니홍남의총명영오힘으로문일지십하야비힘이쉽고
그르침이어렵지아니하니도식일변기거하야일변스랑하야왈로위낭방에온후로데
지이인이잇스나하나는치운동운통도인이라술법이미성하고위인이혼약하야로부
의념려하는배오하나는상전의차다리는도동청운이니비록조곰죄잇스나던성이
요망하야잡술로드러갈가하는고로부의비혼바를전치아니하얏더니이제네지조
와성품을보니운통청운의뉘아니라타일크게쓸곳이잇슬가하느니착념하야비호라
하고이에병법으로써전슈하야왈륙도삼략의합변하느니슈단과팔문구궁의변화하느
방법은오허려제간에전하느니라비호기어렵지아니하니로부에잇는병법은이에
선던비제라그사람이아닌즉전슈치못하니그법술이전혀삼지상성하고오형상극하
야일호권술이업스나그풍운조화지묘와역귀강마지법이정지묘하니네평성을슈
용하나요란홀일홀을듯지아니라홍남이일일이비화수월지간에무불관통하느니도
석대경왈이느던제라로위당치못하리니이만하야도거의제간에무덕하려니와다시
홀무예를비호라하고드디여검술을그르쳐왈넛적의셔부인은다만갈치는법을알고
그쓸줄은모르며공손대낭은그쓸줄은아나그치는법을몰호스니로부의전하느바는
이에던상참창성관의비결이라그주선홀은풍우又고그변화홀은운우를닐호니이비
단만인을디덕홀뿐아니라또협중에두어자로갈이잇스니일홀은부용검이라일월정
괴와성두문장을씨여돌을침에돌이씨여지고쇠를버힘애쇠싼어지느니룡던태아와

간장막야에비홀바아니라범인에게전치아니라두엇더니이제너를주노니잘쓰게하
라홍이비슈하니조초로밤이면도스를피셔병법과검술을강론하고낮이면손삼낭을
다리고산중에더를다가진법을스습하며검술을공부하야스스로쇼견하니적막우량
홀을자못니즐니라일일은홍이부용검을들고연무장에니르려검술을스습하더니도
동청은이무슴척을들고와쇼왈스형아검술도비호려니와이것을보라이는선던갑
방세니선성이맛춤두신고로도적하야왔노라홍이경왈스취나를스랑하사아니마르
치선배업거늘이것은반드시망령도이볼바아닌가하노니썰니갓다두라청은이쇼왈
밤이면선성의취침하심을득이방셔를도적하야보니마장신통호법이내잠간시험
하야보리라하고폴립을뚫어전언을넘하며폴립식을공중에더짐에일기청의동지되
거늘청은이웃고다시전언을넘하며폴립을무수이더지니청은이러나며그남식낮
낮이화하야신장귀졸과선관선네되야분분이하강하더니홀연신으로소리나며도
식청은을볼너왈청은아네엇지요탄흔지조를즈랑하노쇼썰니거두라하고홍을보아
왈도가의둔갑은허황호술업이라네게전코져아니하얏더니임의루설하얏스니대강
비흙이무방하나라일에도를엇어선명을더러이고크게랑패출자는청은이라하더라
시야야심후도식홍을볼너왈세간에헛하노되세가지니유도불도선되라유도는정대
흙을쥬장하고선불은신이흔디갓가오나그마음을다가외물에변역지아님은일반이
라후세의승니도식선불의근본을모르고황탄호술업으로사람의이목을현란하느니

이닐은둔갑이라슈연이나둔갑지법이한번세상에류전흙애흔갓정도로제어치못홀
지니네이제대강비화곤익흔때에슈용홀지어다하고그중지정지묘호병셔를획하야
마르치니홍의총명으로엇지하득흙이어려오리오도식대희왈네마음이본디단정하
야잡되지아니하느니더말홀바아니나십분조심하야일로종스치말라조고로길인파귀
인은비호지아니하느니이는다름이아니라신의를루설흔즉복록에해흙을저허흙이
라홍이일일이마르침을듯고물너나침소로도라갈셔문밖게나섬애일기녀지초당창
밖게서도스와홍의슈작을듯다가홍의나음을보고놀나인홀불견하니홍이대경하야
도스에게고호대도식쇼왈이곳은산중이라귀미와호정이잇서왕왕이러하니경동치
말너니와다만불헛흔바느우리둔갑방셔를슈작호말을드렛슨즉타일후환이되야잠
간인간을소동할가하노라하더라일일은홍이손삼낭과다시부용검을늘고연무장에
나아가검술을스습하다가신과곤회흙애칼을거두고언덕에올나멀니보라보니청산
은덥덥하고빅운은용용홀디향양호썰나무와동구의버들빛이타향풍광을지축하니
홍이망연이보라보고무단흔눈물이소매를적시며손삼낭을보아왈우리산중에드러
온지입의쥬년이라고국산천이몽중에아득하고이역출광이심스를요동하니아지못
게라어느때에만리쥬원의문물을다시보며십리전당의경개를다시되하리오삼낭이
쇼왈로신은강남에잇실제종일로룩하야물속으로드니며두어낫구슬과두어머리성
선을엇은즉여득천금하야구복을빼하더니이곳에온후로열손가락을썸썸안코일신

張子房
鷄鳴山

紫微垣
太白、南
斗、帝垣

이안한하야비불니먹고등업게잠애비린몸이청정하고검은얼굴이희여오니곳하
 고향성각이업는이다홍이미쇼왕사름이세상에나매반드시철정이잇고철정이잇슴
 애또호정근이성기는니정근이라하느것이한번부디침애그든돈힘이혹화하야돌이
 되며그리힘이혹견강하야최도흔느니내로낭으로더부러동시강남사름이라셔호전
 당의청슈흔피뿌리와곡방청루의아름다운물석이낫낫히정들고일일이성각남은인
 지상정이오이게넌은바정근이라일로본즉산천물석도오히려정근을머르려성각나
 거든하를며천척봉우와지괴원별함이리오삼낭이그양공즈를성각함인줄알고추연
 기용하더라홍이즉시초당에드러와잠을일우지못하느니도식홍을불너닐너왕산중에
 잇슬날은적고나갈날은불원하느니무비일시연분이라초창하야말라하고협중에일기
 옥덕을내여천이수곡을불고홍을그르쳐왈한나라장조방이계명산에옥쇼를불어초
 나라군사를호헛스니네옥덕을비화둔죽곳이잇스리라홍이본디음률에성소치아
 년지라삼사에곡요를엇으니도식대희왈이옥덕이본디흔쌍으로일키는문창성근에
 게잇느니네타일고국에도라갈괴회여괴잇슬가하느니일치말고잘누라하더라광음
 이홀홀하야홍이입산흔지장근이년이라일일은도식홍을다리고초당압해비회하며
 들을구경하다가죽장을들어던상을그르쳐왈네더별을알쇼나홍이봄애흔낫근별이
 지미원에돌넋거닐디왈이느문창성인가하느니다도식이연히웃고남방을그르쳐왈
 근일래백이남두를범하느니남방에병해잇슬것이오문창이광치회황하야데원을호위

越、代

하얏스니중국에언지나칠십년래평지치를일가하느니라홍이쇼왕임의병해잇슨즉
 엇지래평지치를일우리잇가도식미쇼왕일란일치는순환지리라일시병화를엇지죽
 히말하리오하더라야심후홍이도와잠잔잠을드렷더니신혼이표탕흔중한곳에니
 르니살괴등턴하코풍위대작흔디일기밍슈크게소리하며한남즈를불고저하거늘그
 남즈를저세보니이에양공지라홍이대노하야부용검을들여그밍슈를치며소리하느
 니손삼낭이넌해누엇다가쳐여왕낭즈는무삼삼을썩시뇨하거늘홍이인하야쳐여던전
 불미하며심중에성각하되우리공제반드시무삼익회잇슴이라내이제만리밧게망연
 이쇼식을모르느니비록구코저하느니엇지구하리오은근흔념려와무궁흔성각이밤새도
 록분분하더라일일은홍이도스를되셔병법을강론하더니홀연산문밧게물소리나며
 동지창황보왈남만왕이문의에와청알하느이다하거늘도식홍을보며미쇼하고즉시
 나락을나가마져레필에나락이피쳐저비와과인이선성의고명을우뢰갓쳐듯조오나
 정성이천박하와이제보오니그옥히불민하야하느이다도식디와대왕이엇지산중한
 인을이긋치심방하시는니잇가만왕이또저비와남방오대동턴은과인의세세상견하
 느니구과이라이제무단이중국에일케되엿스니선성은불상이녀이쇼셔도식쇼왕산야로
 깃이다만산을디하며물을구경할새름이라무삼게괴잇서대왕을도드리잇고만왕이
 눈물을흘녀와과인은드름애월나라재는남녀가지를성각하고디싸물은복녀바람을
 사랑흔다하느니선성이또흔남방사름이라그싸에쳐하야환난을구치아나하느니엇지

文殊菩薩

의그리잇가복망선성은과인의실소함을불상이보샤그회복할방략을지시할쇼셔도
 시쇼왈로워다시성각하야보리니왕은밤에잠잔쉬쇼셔나락이대회하야와당으로나
 가니도시흥을불너집슈초창왈금일은내가국으로도라갈날이라로워남으로더부
 러수년스데지를미저서로적막한회포를위로하더니이제길이리별함을당하니엇
 지창연치아니리오흥이창경창회하야그곡절을무른대도시왕로부느별인이아니라
 서던문슈보살이러니관세음의명을바다그딴에게병법을전코저옵이라이제그딴의
 익운이진하고길운이도라오니고국에도라가영화를누리려니와오허려미우에반년
 살괴잇서병화로써일지니십분조심하라흥이할루왈데지일기녀조로비록약간병법
 을비왔스나고국에도라갈길을아지못하느니불히구르치쇼셔도시쇼왈그딴은본디
 세상사람이아니라던상성정으로문창과숙연이잇서인간에적강하야금형에상봉하
 야타일부귀를누릴것이니이는다관세음의지도하신바라조연주합하야인력으로호
 바아니니근심치말라또닐너와나락은역시던상량성신이라그딴만일구하지아니
 혼죽의아닐가하노라흥이지비슈명하고눈물이영영왈선성을금일비별혼죽어느새
 에다시되오리잇가도시쇼왈평슈봉별은미리딩치못하나길이달나던상극락을곳치
 즐거힘은칠십년후에잇슬가하노라설파에만왕을다시청하야왈로워병들고하데
 조일인을디형하노니그일흥은흥은달이라맛당히대왕의구기를영실치아닐가하느
 이다나락이샤레하고산문에나가거늘흥이도스씩하직하며눈물을금치못하니도식

紅渾脫

天狼星神

五湖、
大夫、
范

蓮花峰

또호창연왈불가계를이정연을밋지아니하느니로워부지럽시낭으로더부러서로맛
 나그지조를스랑함애조연허심하고허심함애또호정연이입혔스니이제비록청산벽
 운의봉별이무덤하나옥경청도의후약이잇슬지니바라건대인간숙연을샐니못고상
 계극락으로도라오라흥이눈물을써리며고왈데지만왕을구호후고국에도라가는날
 다시산문에니르러선성씩비알하고다시비별할가하느이다도시쇼왈로워또호서던
 으로갈길이밧부니그딴비록밧비오나보지못하리라흥이울며춤아찌나지못하니도
 시위로하며지삼가기를지촉호대흥이홀일업서비스하고청운과악슈상별호후손삼
 낭을다리고만왕을싸라가니라츠시나락이흥을다리고도라올시심중에성각하되내
 정성을다하야구원을청하랴와다가일기잔약호쇼년을다려가니엇지제장의조쇼를
 면하리오다만그용모조식은녀조에도업슬지라만일남지아니런들내오대동연을현
 신곳치바리고호편슈로범대부를호촉하리로다하더라차설흥이손삼낭과진에니
 름애종적을금초니진짓일기쇼년명장이며일기건장로줄이라흥이만왕을다리고동
 중디형을조세봄애동편에일좌쇼산이잇스니일흥은련화봉이라흥이봉상에올나스
 면을돌너본후만왕을보아와내명진을문저구경코져하노라하고시야에화과동에니
 르러디형을보고탄왈만일명진원쉬진을동중에치던들한군소도성환치못할것이어
 늘이제성왕방을엇엇스니줄연이파치못할지라명일다만디진하야그용병함을보리
 라즉시명진에겨셔를전하느니겨문에왈

南蠻王 大明都元帥 檄書
 남만왕은대명도원수에게겨서를보내니과인은드름애선왕은덕으로써빛최이
 고힘으로싸호지아니하느니이제대국이십만웅비지사로편방루디에림하시니그
 위티힘이조불려석이라군령을어기지못하야잔병을슈습하야태을동전에다시외
 을가하노니귀병을거느려육신회회를바라나이다

양원쉬겨서를보고경왕그글이잔략중뜻이다하야남만의강한중풍괴업고증화의
 문명훈괴상이잇스니엇지괴이치아나리오하고즉시답겨왈

大明都元帥 南蠻王 答
 대명도원수는남만왕에게답하노니우리황제폐하만방을조시하샤유묘의리격함
 이더딘고로병을도발하사청모의불입함을문죄코저하시니대군소도에외려풍
 飛 蠢爾蠻荆 土崩瓦解 解 特別 好生之德 仁義 威
 비하야준이만형이토봉와히함을볼것이로대특별이호싱지덕을베푸샤인의로감
 化 戒爾士卒 修爾戈矛 七縱七擒 大軍 期約 嗟爾蠻王
 화하고위무로숙찰치아녀명일맛당히대군을거느려괴약에나아갈지니차이만왕
 은게이스줄하고슈이패모하야칠중칠금의늬으침이업게하라

홍이답겨을보고추연왕내만릭지방에수년을침복하야고국문물을다시보지못할가
 하얏더니이글을디힘애임의중화문장을알지라엇지반갑지아나리오하더라익일홍
 이일량쇼거를드고만병을거느려태을동전에진을베폰대양원쉬또한대군을거느려

수빅보빛개결진하니홍이수리를모라진전에나아가명진을바라보니괴치정정하고
 고각이연연중일위쇼년대장이홍포금갑으로대우전을차고손에슈기를들고전후
 좌우에제장이웅위하야놓히안젖스니홍이그명원슈임을알고손삼낭으로진전에웨
 여왈쇼국이남방벽루하디잇서문위쌍전현재업스나금일진법으로싸호고저함은대
 국의용병하심을보고저함이니명진원슈는몬저한진을치쇼하거늘양원쉬그스령
 이웅용하야삼덕전국지풍이잇습을보고심중에경의하야만진을바라보니일기쇼년
 장군이초록검루협슈전포를넙고벽문원앙쌍고요터를싸고머리에성관을쓰고허리
 에부용검을차고거중에단정이안젖스니선연하디도는추쇼명월이창희에도닷고돌
 을흔괴상은추풍호응이벽공에느림긋거늘양원쉬대경하야제장을보아왈이노반드
 시남방중인물이아나라나탁이어디가더긋흔구원을청하노고북을치며슈기를쓸
 어진세를변하야륙륙삼십륙여섯방위를난화륙화진을치니홍이웃고또호북을치며
 만병을지휘하야쌍쌍이십스기를열두배에난화호답진을쳐륙화진을총돌하며손삼
 낭으로웨여왈륙화진은승평유장의한가흔진법이라쇼국에호답진이잇서죽히디덕
 홀가하오니다르진을치쇼하양원쉬북을치며슈기를쓸어륙화진을변하야팔팔륙십
 스팔방을난화팔팔진을치니홍이또호북을치며만병을지휘하야대연오십오다섯방
 위방원진을일위팔팔진을총돌하야성문으로드러괴문으로나오며음방을쳐양방을
 엄습하며손삼낭으로웨여왈한나라제갈무휘륙화진과량의진을합하니초소위팔팔

淮陰侯

孫臏
吳起

孫夜叉

진이라 칭스 문과 괴정문이 잇고 동정방과 음양방이 잇스니 쇼국이 대연진이 잇서 죽히
 디덕홀가 호오니 다루진을치쇼서원쉬대경하야 급히 팔패진을거두고 좌우익을일위
 도익진을치니 홍이 또한방원진을변하야 한줄기장샤진을일위도익진을늘으며 웨여
 왈도익진은덕국을디하야식살하느진이라 쇼국이맛당히장샤진으로충돌하리니다
 른진을치쇼서양원쉬괴를밧비쓸어 좌우익을합하야 학익진을일위장샤진머리를치
 며되던풍으로웨여왈남방의히장샤진으로도익진을늘음만알고도익진이변하야학
 익진이되야장샤진머리를침은엇지싱각지못하느뇨 홍이미쇼하고북을치며장샤진
 을난화두어곳어린진을치니이느덕국을속이느진이라원쉬대노하야대군을열썩에
 난화어린진을가온디두고십면으로에워싸니홍이웃고웨여왈이느회음후의십면미
 복이라곳하야진법이아니니쇼국에오히려한진이잇서방비홀가하노니보쇼서하고
 어린진을변하야다섯썩에난화오방진을치니그동방을친즉남북방이좌우익이되야
 방비하고북방을친즉동서방이좌우익이되야방비하니양원쉬비라보고단왈이느던
 하괴지로다이진법은고금에업느배라오형상극지리를응하야스스로창기호진이니
 비록손빈오괴라도파치못하리로다하고그진법으로괴지못홀줄알고즉시정을쳐
 진을거두고되던풍으로웨여왈금일량진이진법을임의보앗스나다시무예로싸홀재
 잇거든나오라털목잡이창을들고나가되던풍과대전십여합에자로몸을피하거늘손
 야채창을들고나가며척왈네임의진법으로젓스나다시무예로저보라되던풍이대노

왈하은슈염업느오랑캐당돌치말라하고또수합을싸홀시명진중동초마달이일시에
 나와되던풍을돕거늘손야채더덕지못하야물을싸혀다라나니홍이손야채패홀을보
 고대노하야수리에느려물게을나진전에나서며정을쳐털목잡을부르고웨여왈명장
 은호란훈창법을조랑치말고몬저내살을밧으라언필에공중에느느살이드러와되던
 풍의투구를맞쳐싸에떠러지니동초마달이대노하야일시에창검을출추어곳홍을취
 코저하더니홍이옥슈를번득이며시위소리나는곳에호르느살이뒤를니아드러와동
 마량장의엄심감을일시에맞쳐정연이쳐여진대량장이싸홀뜻이업서물을돌녀본진
 으로도라옴애되던풍이투구를집어곳쳐쓰고벽력부를두루며대척왈요마만장은조
 곰지조를밧고무례치말라하고또홍에게다라들더니홀연번신락마하니아지못게라
 무숨곡절인고하회를보라

데십삼회

옥루쇼는조웅률로슈창하고

구슬거문고는산슈줄이단속하다

玉笛酬唱雌雄律

瑤琴斷續山水絃

각설되던풍이분괴등던하야도채를두루며홍에게다라드니홍이던연이웃고마상에
 부용검을집고박은듯이서서요동치아니거늘던풍이더욱노하야한마디소리를지르
 고진력하야도채를돌녀홍을침애홍이홀연쌍검을흔들며몸을반공에소스니던풍이

허공을치고 급히도 채를 거두라 하더니 머리에 정연한 소리가 떠는 칼이 공중에 찌러져 투귀야 지니던 풍이 황망하야 번신락마흔대 홍이다 시도라 보지 아니하고 다만 칼을 거두니 원리 홍의 칼쓰는 법이 천심이 있서 다만 투구를 세칠새를 이오 사름이 상치 아녜스나로 장이 임의 정신을 슈습지 못하야 그 머리 업슴을 의심하니 엇지 다시 싸홀것이잇스리오 급히 물돌너 본진으로 오니 양원쉬진상에서 바라보다가 대노왈 입에 젖내나논 일기만장을 세장쉬디덕지 못하니 내맛당히 친이나가 이장슈를 싣금하리라하고 물게을나진전에나서거늘 소스매간왕원슈의테중하심으로 엇지 일기만장과 경솔이 접전하시리오 쇼장이 비록 무용하나 한번 나가 싸화만장의 머리를 휘하에 밧치리이다하고 즉시 물돌노와가나원리소유경이 쇼년에기로진법을즈부하야 한번결워보고저함이라이에방련극을들고바로홍을취하라하니 홍이 물돌너 접전수합에소스마의창법이정묘함을보고물을싸쳐섭여보를물너서며공중을향하야우슈에들엇든부용검을더지니그칼이늘나소스마머리우에느러지라하거늘소스매물우에서몸을피하야방련극을들너막고저하더니 홍이 임의물을노아드러오니소스매즉시몸을굽혀피하야창을들어막고저하더니 홍이다시좌슈로느는칼을밧고물을달니며슈중쌍검을일시에더지거늘소스매련하야황망이피하야싸홈애겨를치못하더니 홍이다시공중을향하야쌍슈로쌍검을바다들고바람갯치굴너스방으로도라돈이며마상에춤추니빅설이분분하야공중에느뵈치고락화편편하야풍전에늘니는듯홀연홀줄기푸

일맛당히남방절반으로써장군의공을갑홀가하느이다인하야즈괴군중에침을청하니 홍이 쇼왕산신이한적함을토회하야군중이요란하며피로오니일간지실을고요한데잇어슈하로졸과종용이쉬고저하노라나탁이거스리지못하야동중지실을별로치워주니 홍이손삼낭을다리고경야홀시심중에싱각하되내비록은녀저나엇지대의를모르고만왕을위하야고국을저버리리오만일내손으로일기명장과일기명줄을살해하면의아니나스부의명의로나락을구하랴와다가그저감도도리아니니엇지면량편하리오하더니홀연한계교를싱각하고손야차를보아왕금야월식이장아름다오니내동구에나가련화봉에올나명진동정을구경하리라하고야차와월식을씨여빅운도스의주던옥덕을품에품고련화봉에올나명진을바라보니고각이적료하고등축이명멸홀디경덤은삼경을보하거늘홍이회중옥덕을내야일곡을부니츠시셔풍이쇼슬하고성월이명랑홀디령상의도라가느기력기화동중의숨흔жат나비타향기회를무한히돕느니라하물며만리절역에부모를씨나며련애가실에쳐즈를쌈싸는군소리오찬이슬이갑옷에드득하고명월이진중에조료하니혹창을베고무료이누엇스며혹칼을치며쳐창이안졌더니홀연풍편에일성옥덕이반공에료하야곡도의쳐랑함은털석을녹이고소리의오열함은산천이변식거늘시야명진의십만대군이일시에잡을씨여로자느쳐즈를싱각하고쇼자느부모를스모하야혹눈물을씩려히탄식하며혹고향을노래하야나리방황하느연군중이요란하야부의차란홀디마군대장은채썩을일코

일맛당히 남방결반으로 써 장군의 공을 갑을 가하느이다 인하여 저 군중에 십을 청하
니 홍이 쇼왕산인이 한적함을 도화하여 군중이 요란하며 피로오니 일간직실을 고요한
되 있어 슈하로 졸과 종용이 쉬고져하노라 나락이 거스리지 못하여 동종직실을 별로치
위주니 홍이 손삼낭을 다리고 경야할식심중에 생각하되 내비록이 녀저나 엇지 대의를
모르고 만왕을 위하여 고국을 저버리리오 만일 내손으로 일기명장과 일기명줄을 살해
하면 의아나나 스부의 명으로 나락을 구하랴 왔다가 그저 감도도리 아니니 엇지 면편
하리오 하더니 홀연히 계교를 생각하고 손야차를 보아 왈 금야월식이 2장아름다오니
내동구에 나가련화봉에 올라 명진동정을 구경하리라 하고 야차와 월식을 띄여 박은도
스의 주던 옥덕을 품에 품고련화봉에 올라 명진을 바라보니 고각이 적료하고 등축이 명
멸흔디 경덤은 삼경을 보하거늘 홍이 회중옥덕을 내야 일곡을 부니 츠시서 풍이 쇼슬하
고 성월이 명랑흔디 령상의 도라가느기 령기와 동종의 숨흔жат나 비타향직회를 무한히
돕느니라 하물며 만리절역에 부모를 떠나며 텨애가 실에 처자를 씀씩는 군식리오 찬이
슬이 갑옷에 2득하고 명월이 진중에 조료하니 흑창을 베고 무료가 누엇스며 흑칼을 치
며 처창이 안젓더니 홀연 풍편에 일성옥덕이 반공에 료하여 곡요의 처량함은 털석을
녹이고 소리의 오열함은 산천이 변식거늘 시야명진의 십만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여로
자느쳐저를 생각하고 쇼자느부모를 스모하야 흑눈물을 썩려히 탄식하며 흑고향을
노래하야 나리 방황하느니 즈연 군중이 요란하야 부외 착란흔디 마군대장은 채썩을 일코

망연이 섰스며 군문도 위는 방패를 안고 강개오열하느니 소스대명하야 동마량장을 불
너 군중을 조속고져하더니 량장이 또한 괴식이 처량하고 거지슈상하거늘 소스대 급히
원슈씩고하느니 츠시 양원슈맛춤잠을 드러 병서를 베고 자라하느니 일기보살이 빅옥여의
를 들고 길을 막거늘 원슈대노하야 칼을 빼혀 여의를 찌리니 그 소리 정연하며 찌어 찌려
저호송이 씻이 되니 붉은 광채와 이상한 향내던진 동하거늘 원슈대명하야 저니 한숨
이라 심중에 의아하더니 소스대 황망이 장중에 드러와 군중동정을 보하거늘 원슈늘나
장박게나 아안저 밤을 무르니 임의 스오경에 갓감고 삼군이 서설하야 진중이 물살듯하
며 일진서풍이 슈기를 불며 풍편에 일성옥덕이 이원처절하야 영웅의 회포로도 비량함
을 이기지 못할지라 원슈귀를 기우려한 번드름에 엇지 그 곡요를 모르리오 제장을 보아
왈 네날 장조방이 계명산에 올라 옥쇼를 불어 초병을 훔혔스니 아지 못게라 이곳에 엇더
흔사름이 능히 이곡요를 아느고 내또한 어려서 옥덕을 비화두어 곡요를 괴어하더니 이
제한번 시험하야 삼군의 처량한 심회를 진딩케하리라 하고 갑중의 옥덕을 내어 장을 놓
히것고 서안을 의지하야 한곡요를 부니 그 소리 화평호방하야 천리장강에 봄물결이 흐
르는듯 삼월썩다온나무에 화신풍이니 러나느듯한 번불매 처량한 심식이 연이풀어지
며 두번불매 호랑흔디 음이 유연이 성기니 군중이 즈연 안온하거늘 원슈다시 음를 변
하야 또 일곡을 부니 기성이 웅장되락하야 도문협곡이 가축을 화답하고 출시 장군이 텨
괴를 울니느듯 장삼군이 괴식을 림름하야 북을어로 모지며 칼을 춤추어 한번 싸호고

저하니 원쉬웃고 옥덕을 굿친후도로 장중에 드러가면 전불미하며 생각되내 비록 락
하에 널니 놀아 인지를 다보지 못하얏스나 엇지 만 락 지방에 이르듯 초군 절류 혼인치 잇
슬 줄아 랫스 리오이 제 만 장의 무예와 병법을 봄에 진짓 국스 무쌍이오련하거지라 옥덕
이 또 혼범인의 불배아니니 이는 반드시 하 놀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아니시고 조물이나
의 대공을 저희하야 인지를 내야 만왕을 도음이로다 잠을 일우지 못하교 소스마를 다시
장중으로 불너 문왕 장군이 작일 진상에 만 장의 용모를 저세보앗는뇨 소스매왕가시덤
불속에 씻다온풀이 분명하교 와 룩구 덩이에 보비구슬이 완연하니 비록 잠잔보앗스나
엇지니즈리잇고 당돌혼괴상은 당세영웅이오그션연흔티도는 천고가인이라 약흔허
리와 가는 눈섭은 남자의 모양이 적고 표일흔거동과 효용흔티되또흔녀저에 업슬지니
대개 남자의 룽하면고 무금무흔인치오녀저로의 룽흔죽경국경성흔저식일가하느
이다 원쉬묵묵무어하더라 츠시흔이스부의 명으로 만왕을 구하랴왔스나 부모지향을
또흔저보리지 못하야 종용흔옥덕으로 장저방을 효측하야 강동저데를 스스로 훔쳐지
게하랴더니 의외명진중에 일기 옥덕이 소리를 화답하야 비록 곡되부동하나 음들이틀
니지아니하교괴상이 현슈하나의식다름이 업서 조양처봉이 웅창저화흔곳흐니흔이
옥덕을 멈추고 망연저실하야 머리를 숙이고이 옥히성각왈빅운도식말하되이 옥덕이
본티일쌍으로 일기는 문창에 게잇서고 국에 도라갈과 회여괴잇다하더니이제명원쉬
혹문창성정이나닌줄어이알니오그러나하 놀이 옥덕을 내실제 엇지하야 혼쌍을 내시

며임의쌍이잇슨죽엇지하야 남북에 짝을 일코그합흔이더더게하느뇨또다시성각
왈이옥덕이임의명흔쌍이잇슨죽그부는 재반드시 짝이될지니 황련이부감하시고명
월이조림하느니강남흔의쌍이될자는 양공저일인이라혹조물이도으시고보살이저
비하샤우리공저금일명진도원쉬되야오시니잇가내작일진전에전법을보고금일월
하에덕성을드름애금세무쌍흔인저라내맛당히명일도전하야원슈의용모를저세이
보리라하교즉시직실에도라와북기를고디하야만왕을보고왈금일은맛당히도전하
야저웅을결단하느니대왕은문저만병을거느려동전에진을치쇼셔나타이응락하교
군스를거느려나가거늘흔이수리를보리고물게올나손야차를다리고진전에나가니
양원쉬또흔니르러결진흔후흔이권모설화마를드고부용검을차고궁시를씩여괴문
아래완연이나서며손야차로크게웨여왈작일싸흔은나의무예를처음시험하거용셔
흔이잇거니와금일은저량하야능히당흔재잇거든나오고만일당치못흔자는부절업
시나와전장빅골을보티지말라좌익장군동최대노하야창을들고나가니흔이말곳비
를거스려잡고요동치아녀왈필부는돌려하느장쉬라나의덕쉬아니나다른장쉬나오
라동최더옥대노하야창을춤추며충돌코져하더니흔이웃고척왈필뵈종시물너가지
아닐진대내맛당히네창탓해달닌상모를쏘아쳐러칠것이니네능히피흔소나언미필
에동최의번개곳치두루는창탓해살쥍소리정연하며상피쳐러져마전에느부치니흔
이다시웨여왈내다시네좌편눈을맛칠지니능히피흔소나언미필에서위소리나거늘

동최황망이마상에업디여본진으로도라오니되련풍이브라보고분함을참지못하야
 도체를두루며또나오거늘홍이쇼왕로장은부절업시외로호정력을허비치말지어다
 내맛당히성명을용셔하리니로장은갑옷우의칼흔적을보아내슈단을보라언필에부
 용검을춤추어접전수합에되련풍이굽어보니십여처칼흔적이임의란만흔지라갑히
 다시싸홀뜻이업서물을싸혀도라오니명진제장이서로도라보며즐거나갈재업거늘
 양원슈대노하야분연이니러나빅비청총스즈마를드고장팔링턴리화창을물고홍포
 금갑에궁시를차고진전에나서니소스매간왕원슈황명을밧자와삼군을동독하시니
 국가의안위일신에달넷스며종사의중대함이진퇴에미엇거늘이제필마단괴로위되
 함을무릅쓰고일시지분으로승부를결우고저하시니이엇지목을보중하샤국가를도
 보하시느낀뜻이리잇고초시양원슈쇼년에괴로홍의무예절륜함을보고한번결위보고
 저하야간함을듯지아니하고물을노아나가니홍이원슈의스스로나음을보고또한물
 을노아부용검을들고서로마저싸함이일합이못되야홍의총명으로엇지양공자를모
 르리오반김이극함에눈물이압서고정신이황홀하야아모리할줄모르나다만양원슈
 의지괴지심함으로오히려황천야드의영결호홍남이만리절역에접전하고만장됨을
 어이알니오초시양원슈창을들어홍을취하랴하거늘홍이급히허리를굽혀피하야슈
 중쌍검을싸에떠러치고소리왕쇼장이실슈하야칼을노앗스니원슈는창을잠깐멈추
 사집기를허하쇼셔양원슈그성음이귀에나음을듯고급히창을거두며용모를즈세습

黃泉
夜臺

히더니홍이느는다시물게나려칼을집어도로물게오르며원슈를보아왕천첩강남홍
 을상공이엇지니즈시니잇가첩이이길로상공을싸를일이로대슈하로줄이만진에잇
 스니금야삼경에군중으로괴약하느이다언필에물을채쳐본진으로표연이도라가니
 양원슈창을안고얼인듯이서서랑구이브라보다가또한진중으로도라오니소스매마
 저문왕금일만장이지조를다하하아니함은무슨곡절이니잇고원슈쇼이부답하고급
 히진을물너화과동으로오니라홍이만왕을보고왕금일명원슈를거의싱금홀것을신
 괴불평하야되진하얏스니금야도첩하야명일다시싸호리라나타이되왕장군이신상
 이불평하신죽과인이맛당히좌우에되셔의약을천심할가하느이다홍왕대왕은물려
 하시고다만고요이도첩함을허하쇼셔나락이즉시괴실을움겨더욱한벽흔곳에덩하
 니라시야에홍이손삼낭을디하야진상에서양공자를맞나금야삼경에명진으로가랴
 하느낀을말하니삼낭이대회하야만히형구를슈습하랴차설양원슈본진에도라
 와장중에누어싱각하되금일진상에서맞는채춤홍낭인즉비단흔어진인연늘니으니
 괴이홀뿐아니라국가를위하야남만을평당하거또한쉬을지니엇지깃부지아니리오
 마는홍이능히세간에성존하야이곳에서다시맛남은몽미에도괴약지못흔배라아마
 도홍의원혼이혹히지지아니하고남방은즈고로충신렬녀의익슈흔재만흐니초강청
 풍과쇼상반죽에고흔이상종하며왕리쇼요하다가내이곳에음을알고그평성의원통
 혼정회를설원코저함이아닌가제임의금야삼경에군중으로괴약하얏스니다만기드

楚江
瀟湘

려보리라 하고 축불을 도도고 셔안을 의지하여 경덤을 헤며 안젓더니 아이오 삼경일덤
을 보다가 늘원쉬 좌우물물니고 장을 깃어 밀키고 대하더니 홀연한풍이 축을 불며 한
줄기 청괴 장중으로 드러오니 원쉬 정신을 초려 찬찬히 보니 일기 쇼년 장군이 쌍검을 집
고 표연이느라 드러와 축하에서 거늘원쉬 일변 놀나지세보니 완연한 유유구원의 성리
스별하고 경경일념의 오미 불망하든 홍낭이라 열뜻이 말이 업다가 량구에 문왈 홍낭
아네 죽어 령혼이 오미나 살아진면이 오미나 내 그 죽음을 알고 살아오미를 밋지 못하노라
홍낭이 또 흔허희오 열하야 말을 일우지 못하야 왈 첩이 상공의 이홀하심을 남스와 슈중
원혼이 되지 아니하고 만리절역에 그리든 용광을 다시 뵈오니 홍중무에 무한한 말을 창
졸잔다 못할지라 좌우의 이목이 번다하오니 첩의 형식이 탄로할가 저하하느니 이다원
쉬 죽시몸을 니러 장을느리고 홍낭의 손을 잡아 좌에 안치며 눈물을 금하지 못하거늘 홍
이원슈의 손을 밧들고 밀키 추파에 루쉬 영영 왈 상공이 첩의 생존함을 묻기 밧그로 알으
섯스나 첩은 상공이 금일이 곳에 나르심을 또 혼함인가 하느니 이다원쉬 탄왈 장부형장은
덩흠이 업거니와 낭은 불과 혈혈녀지라 잔악한 몸이 풍도의 환란을 당하야 이곳에 나르
도괴이 하거든 하물며 쇼년명장이 되야 만왕을 구하랴 올음은 의외로 다홍낭이 이에 항주
서익운을 당하야 윤쇼제 손삼낭으로 구하든 말과 표박종적이라도 스를 맞나 빅운동에 의
탁하야 도식병법과 검술을 무르치든 말과 만왕을 위하야 스부의 명으로 출산하곤 곡절을
일일이 고하니 원쉬 또 혼별 후스고 를세세이 말하교 윤쇼제를 취함과 벽성선을 다려음

과 황명을 밧조와 황씨를 취하전 후 설화를 형용치 못하느라 원쉬 축하에 홍낭의 얼굴을
봄애 붉은 눈섭과 파리호쌈이 일덤진애괴상이 업서 선언하교 아릿다음이 전일에 일층
더하거늘 새로이 스랑하야 전포를 글으고 장중에련 침홀시키고 정의견원함과 신정의은
근흠이 원문고 각이 효식을 지축함을 호하느라 하늘이 붓고저하니 홍낭이 놀나 몸을 날
어다시 전포를 남으며 쇼왈 첩이 상공을 항주서 맛날제 변복하야 서성이 되엿더니 금일
이곳에다시 변복하야 장쉬되오니 가위문무겸전하재라 정남도원슈의 쇼실됨이 붓그
럽지아니나 다만 규중녀조의 본식이 아니라다시 산중에자최를 곱초와원슈의남만을
도평하신후후거를세라갈가하느니 이다원쉬 텅파에 악연왈 내이역에 드러와 심복이 업
고 군무에성소함이만거늘만일도라보지아니하죽이엇지빅년지괴의환난을갓치하
느싯이리오홍낭이쇼왈상공이첩을장슈로부터리고저하싯진대세가지악속을덩하느
니악도에왈

還軍 還軍
환군하시느날 서지첩을갓가이말으시며

첩의 종적을 숨기사 제장에 배루설치말으시며

남방을 평정후나 타을저버리지말으읍쇼셔

원슈 쾌락하교다시미쇼왈 두가지악속은어렵지아니나다만데일건스는혹실신함을
허물치말라홍낭이쇼왈첩이임의원슈의명을밧조와장슈되엿스니상공이비록석일

홍낭으로 대접코져 하시나 령이 서지 못할가 하느이다 인하여 몸을 닐며 고왈 첩이 금야
예상공을 되심은 스정이라 군중이 절엄하야 출입을 받드시 광명이 홀지니 첩이 이제 도
라가여 츀여 츀할 것이니 상공은 또 혼여 츀여 츀하쇼셔 설파에 다시 쌍검을 들고 표연이
나가니 아지 못케라 홍낭이 도라가 었지 혼가 하 회를 보라

옥루몽 권지 일종

大正元年十二月二十日

全
十二月廿一日

全
五月廿五日

發行

再版發行

編修
發行

印
刷

印刷

玉樓夢卷一

定價金四十五錢

郵稅六錢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崔昌善

崔誠愚

新文館印出所

發行所

京城府黃金町
京城府鍾路通

新文館
廣學書舖

▲新文館發刊小說▼

불상흔동무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라미이夫人 原著 (崔南善譯)

괴이한저조와큰뜻을풀었스나가난한집에나고북을
어주노이업는싸닭으로참혹하게세상을쳐나노이약
이니고금무수흔서침중에서빚가지들썩는가운되참
예호일흔난척이라

검둥의설음

全壹冊 {定價參拾錢} 郵稅六錢

米國 스토우夫人 原著 (李光洙譯)

이척은한쇼설이라하면그만이나실상은이백만명군
수가전정을하고수백만명중이량민이되게호련리인
도의대언론이니이십여나라말에번역되고수백만사
람의칭찬을얻은것이니라

자랑의단추

全壹冊 {定價廿五錢} 郵稅四錢

데데라하는한회회가이상한단추한아를가지고하늘
나라에는구센군수가되고이세상에서노날년선비가

되노아를다음이약이니아모든지배오고생각할일이
만흔척이라

얼니버유람과

全壹冊 {定價拾錢} 郵稅貳錢

英國 스워프트 原著

유람조하는한의원이우연히표풍을당하야산덴이
갓흔왕사람이사노나라와손가락만흔알사람이사노
심을구경하든과록이니괴이한이약이가척에가득하
니라

만인계

全壹冊 {定價貳拾錢} 郵稅四錢

英國 엡디워어쓰夫人 原著

이척은쓰게생긴지들은집안의지화요오죽부즈런과
사랑이참복락을지여내노리치를그러낸것이니수실
은주미잇고필법은교묘하니라

絶倒百話

開卷嬉嬉

各壹冊 定價各拾錢 郵稅貳錢

이두척은古今笑話中特別히趣味잇는者百則식을選
하야輕妙洒脫한文으로記述한者이라

